

순창,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복구 비용 50~70% 국비 지원... 군 재정에 숨통 주택 침수 최고 1600만원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도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군은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윤재관 청야대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북 순창을 비롯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지역이다.

순창군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 군무원이 공휴일도 반납하고, 유등과 적성면 등 순창 곳곳에 침수피

해 현장에 투입해 피해복구와 조사에 몰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지난 집중호우 당시 새벽부터 호우피해 현장에서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서며 전 방위적인 업무태세를 갖췄다. 황 군수는 지난 12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호우피해 현장방문 당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13일에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와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며, 한 시를 놓게 됐으며, 군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호우피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50만원에서 1,000만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주택 침수되거나 반파, 전파나 유실된 경우에도 각각 2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순창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은 6,071건에 피해액이 14억 4,900여만원, 공공시설은 총 326건에 피해액 125억 원, 복구액 233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이 국비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공공시설 피해액은 총 124건에 피해액 99억 원, 복구비 209억 5,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많은 강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도를 강화했다.

임실군, 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 지도 강화

임실군은 많은 강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도를 강화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농작물 관리요령 등에 대한 홍보·지도 강화 및 농가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올해 유난히도 긴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각종 병해충과 잡리장해가 증가해 작물들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까지 겹치면 농작물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상중인 태풍 '바비'는 서해안을 타고 북상할 예정으로 지난해 9월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링링'과 경로와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

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태풍이 오기 전 노지작물(고추, 파수 등)들은 지주대를 단단히 고정해 쓰러짐이 없도록 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많은 비에 대비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는 단단히 고정하여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며, 완전히 밀폐되도록 모든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내부 공기를 빼주어 높은 부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전기시설은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감전 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는 모든 농작업이나 복구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영농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정상 운영”

내달 5일부터 3개월간

순창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가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들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증진기 위해 9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군은 이번 조치로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기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토요일 근무는 농업기술센터 내 임대사업소(본소)에서만 운영하며, 농민들의 작업여건을 감안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한다.

임대사업소에는 농기계와 작업기 87기종에 818대를 확보해 임대해주고 있다. 또한 국·도비 1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장비를 신기종으로 대체하고, 여성친화형 임대장비 등 27기종에 100여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농업인이 임대농기



순창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가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들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증진기 위해 9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정상 운영

계 사용에 있어 불편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실태소 소장은 “영농철 농업인들의 농작업 일정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임대농기계를 자신의 농기계처럼 아껴 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수해지역 지적 경계복원 전국 첫 무상 지원

남원시가 호우 피해로 수몰 된 마을의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적경계 복원을 전국 최초 무상으로 시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사업 이후 누구나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고, 측량 성과물(경계점 좌

표, 사진, 지상구조물과의 거리 등)을 영구 보존하고 있어 수해민의 토지 경계 확인 및 남원시에 보유 중인 GIS 측량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지역은 수해지역 중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3년에 추진한 노암3동과 송동 세전(동양중상신산마을), 2019년에 추진하고 있는 귀석, 상귀마을을 2020년에 추진하고 있는 상귀마을(원마을) 일원이다.

신청 절차는 수해를 입은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에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지 23년만에 발간

역사·문화유산·인물 등 1995년 이후 발전상 담아

임실군의 역사 등 모든 것을 오프라인 담아낸 '임실군지'가 23년만에 발간됐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임실군지 발간사업을 시작,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임실군지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임실군지는 지난 1977년과 1997년 제작된 이후 23년만에,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1995년 이후의 임실군의 발전상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임실의 역사 ▲문화유산과 역사자료 ▲임실의 생활과 민속 ▲자연환경 및 인문지리 ▲현대사회와 미래 ▲임실의 인물지 등 모두 6책 1질로 구분해 간행했다.

기존에 두께가 긴행되었던 군지를 6개 분야로 구분, 글씨체는 물론 500쪽 내외의 두께, 사진과 도판도 컬러 인쇄를 통해 가독성과 생생함을 전달하

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발간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임실군 지편찬위원회(위원장 최성미)를 구성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문화연구소(책임 한문종)에서 약 2년에 걸쳐 원고집필 사업을 진행했다. 원고집필에 참여한 연구자가 약 40여명에 이르렀으며, 집필원고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하여 오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임실군지는 임실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뜻깊은 이야기는 각 지역의 편지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전환 등은 디지털인문문화대전 사업 등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군은 이를 통해 임실의 역사와 문화가 타지역과 비교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김광수 남원소방서장 태풍 '바비' 대비 점검



김광수 남원소방서장이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는 현장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난 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지면과, 뱀사골아영지, 침수예상지역 등 9개소 현장에서는 강풍피해에 대비한 단계적인 점검과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현재 남원소방서에서는 풍수 정비 점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비상연락망 사전점검, 침수우려 및 강풍피해 요소 안전조치 등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김광수 서장은 “전 주민들은 태풍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 태풍피해에 대비하고, 상황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사회복지관 임시휴관

남원시가 전북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일부터 남원사회복지관 운영을 중단하고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남원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시간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숲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남원시는 도시락 서비스 및 중증대상자 활동지원 서비스는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꼭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보호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갑작스럽게 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지만 어르신들 보호에는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